
인터넷 윤리와 악성댓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

박희숙*

A Survey on Aware of University Students for Internet Ethics and Malicious Replay

Hee-Sook Park*

요 약

인터넷의 성장과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많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들 중 한 가지는 네티즌들의 인터넷 윤리의식 약화로 인한 악성댓글 문제이다. 악성댓글 문제는 점점 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음은 물론 그 피해자들은 많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윤리의식 및 악성댓글에 관한 그들의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다음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Because of the growth of internet and development of smart phone technology, peoples are able to connect the internet easily and convenient at anytime, and anywhere. The other hand, that take place many serious social side-effect and one of a typical cases is the problem of malicious replay in weaken of netizen's internet ethics. The problem of malicious replay is increasing more and mor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the victims are suffering from much the pains of the trauma by a malicious replay.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d analyze actual on aware of internet ethics and malicious replay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hen we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

키워드

인터넷 윤리, 악성댓글, 네티즌, N세대

Key word

Internet ethics, Malicious replay, Netizen, Net Generation

* 정회원 : 부경대학교 (교신저자, bg007@hanmail.net)

접수일자 : 2012. 04. 16

심사완료일자 : 2012. 08. 06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2.16.9.204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 론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컴퓨터가 그들의 삶에 많은 부분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길을 걸을 때나 지하철 혹은 버스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또한 많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신속한 정보의 획득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악성댓글, 저작권 침해, 사이버 테러, 사이버 폭력,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유해정보 유통,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들이 대표적인 부작용의 사례들로 대두 되고 있다[1].

특히 ‘악성댓글’로 표출되는 사이버 언어폭력은 최근 국내외의 잇따른 연예인 자살(동아일보, 2008) 및 십대 자살(Kowalski, Limber and Agatston, 2008)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2,3,4]. 이러한 악성댓글을 비롯한 사이버언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터넷실명제와 전자서명제등과 같은 정보통신법 개정을 통한 처벌 조항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여 지난 2007년부터 법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정보통신법개정 이후 이 같은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신뢰할 만한 결과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5].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의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문제는 이제 개인의 윤리적인 의식 수준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으며, 이것은 더 이상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물론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원주민 1세대이자 N세대(Net Generation)의 중심세력으로서 일상 중에서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보내고 있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관한 실제 그들의 윤리의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윤리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2장에서 인터넷 윤리학과 악성댓글 관련한 선행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3장에

서는 대학생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기술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결론 및 제언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전통적인 윤리의 개념은 동양적인 의미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곧 인간관계의 이치를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암묵적인 믿음과 약속, 곧 양심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적인 의미로는 ‘인간 사회 안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인간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과거의 윤리학을 현재 정보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터넷 윤리학이 필요한 것이다[6].

인터넷 윤리학(Internet ethics)이란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탐구를 목표로 하는 응용규범 윤리학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인터넷 윤리학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도덕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도덕적 원리들에 의거하여 사이버공간속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즉, 인터넷 윤리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규범적인 기준체로서 인터넷상에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의미한다. 인터넷 윤리학이 수행해야할 기능은 그림 1과 같다[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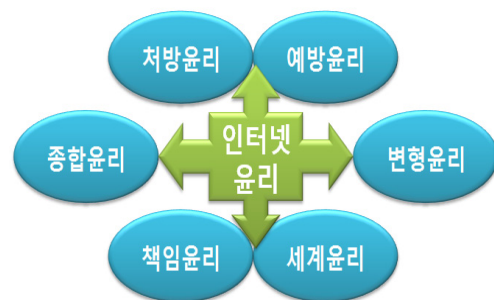


그림 1. 인터넷 윤리의 기능
Fig. 1 Functions of internet ethics

악플이란 악성 리플라이(Malicious replay)의 줄임말로 악성댓글을 말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네티즌(Netizen)들이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이유가 얼굴을 맞대지 않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살아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8]. 악성댓글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은 그림 2와 같다[9].



그림 2. 악성댓글의 범위
Fig. 2 Range of malicious replay

악성댓글이 활성화되는 몇 가지 요인들은 익명성, 비대면성, 집단성, 개인 이기주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성향 등이 있다[10].

Ⅲ. 악성댓글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본 연구는 그림 3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그림 3. 연구 절차
Fig. 3 Process of survey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윤리의식과 악성 댓글 관련 실태 조사를 위해 전체 17개의 문항을 선정하

였다. 이들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4명과 2회에 걸쳐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질문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조사문항은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악성/선의 댓글을 게시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이며 문항1-4에 해당한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악성댓글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관한 것이며 문항5-8에 해당하며,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인터넷 윤리의식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 및 견해에 관한 질문으로 문항9-17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문항
Table. 1 Questions of survey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악성댓글을 게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2	만약 악성댓글을 게시한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매주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가끔씩 한번 <input type="checkbox"/> 전혀 안함
3	귀하는 네티즌들의 악성댓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4	귀하는 인터넷상에 누군가를 위해 응원의 댓글을 게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자주 있다
5	자신이 올린 악성댓글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을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6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다
7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input type="checkbox"/> 개인적인 문제다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인 문제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문항 번호	조사 내용
8	만약 주변사람이 악성댓글을 게시하려고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만류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만류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극 만류 한다
9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 네티즌들의 인터넷 윤리의 식 수준은? <input type="checkbox"/> 매우 낮다 <input type="checkbox"/> 낮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다
10	귀하는 인터넷 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11	만약 귀하가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시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12	귀하가 받은 인터넷 윤리교육의 형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정규과목 <input type="checkbox"/> 타교과목의 한단원 <input type="checkbox"/> 기타(특강/세미나)
13	귀하는 자신이 받은 인터넷 윤리교육의 양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부족함 <input type="checkbox"/> 부족함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충분함 <input type="checkbox"/> 매우 충분함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14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윤리교육의 기회는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부족함 <input type="checkbox"/> 부족함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충분함 <input type="checkbox"/> 매우 충분함
15	귀하는 인터넷 윤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 없다 <input type="checkbox"/> 필요 없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16	인터넷 윤리교육의 기회가 귀하에게 주어진다면 참여 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7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형태는? <input type="checkbox"/> 정규과목 <input type="checkbox"/> 타교과목의 한단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세미나/특강)

본 연구를 위해 우리는 부산시내 소재 총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 정보시스템, 수학, 해운항만경영학과, 통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체 122명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통계분석 처리는 생략 한다. 그 이유는 조사결과를 그래프와 비율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2. 설문조사 결과
Table. 2 Results of survey

조사 결과					
문항 번호	조사 항목	응답 결과	문항 번호	조사 항목	응답 결과
1	있다	23	10	있다	52
	없다	99		없다	70
2	매일	4	11	초등학교	11
	매주	0		중학교	35
	매월	0		고등학교	37
	가끔씩 한번	19		대학교	6
	전혀 안함	99		기타	2
3	있다	17	12	정규과목	1
	없다	105		타교과목의 한단원	33
4	전혀 없다	35	13	기타 (특강/세미나)	18
	가끔 있다	55		매우 부족함	12
	자주 있다	27		부족함	30
5	매우 자주 있다	5	14	보통	48
	있다	78		충분함	10
6	없다	44	15	매우 충분함	3
	있다	76		잘 모름	19
7	가끔 있다	32	14	매우 부족함	26
	전혀 없다	14		부족함	52
	개인적 문제다	17		보통	39
8	사회적인 문제다	86	15	충분함	3
	잘 모름	19		매우 충분함	2
8	만류하지 않는다	23	15	전혀 필요없다	4
	만류한다	75		필요하다	15
	적극적으로 만류 한다	24		보통	27
				필요하다	57
				매우 필요하다	19

조사 결과					
문항 번호	조사 항목	응답 결과	문항 번호	조사 항목	응답 결과
9	매우 낮다	31	16	예	72
	낮다	53		아니오	50
	보통	27	17	정규과목	26
	높다	8		타 교과목의 한단원	29
	매우 높다	3		기타 (특강/세미나)	67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성댓글 작성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19%정도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댓글의 게시 빈도수에 대한 질의 응답결과는 3%는 매일, 16%는 가끔씩 한번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악성댓글로 인해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은 14%는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선의의 응원 댓글(선플) 게시에 대한 경험은 과반수 이상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댓글 때문에 타인이 받게 될 상처와 악성댓글 게시 행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타인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악성댓글의 게시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대 대학생들이 자신의 악성 댓글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스스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악성댓글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한 질문에서는 70%이상의 학생들이 사회적이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범사회적으로 악성댓글 게시 행위와 관련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네티즌들에게 고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주변사람의 악성댓글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20%이하의 학생들만이 “만류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이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타인의 악성댓글 행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위임을 공감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수준에 관한 질문에서 90% 이상의 학생들이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수준이 보통이

하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터넷 윤리교육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와 관한 응답결과이다.

응답자의 57%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1회인 경우는 63%(33명), 2회인 경우 19%(10명)이며 겨우 17%(9명)만이 3회 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터넷 윤리교육의 기회가 현저히 적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들이 받은 교육의 형태 조사결과에서 단지 1명만이 독립된 정규과목 형태로 교육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다른 교과목(윤리/도덕/컴퓨터)의 한단원에 속한 형태 또는 기타(특강/세미나 형태)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들이 받은 인터넷 윤리교육의 양적수준에 대한 응답에서는 10%만이 ‘충분하다’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기회에 대한 질문에서는 60%이상의 학생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각종 교육기관 및 기업체들에서 인터넷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윤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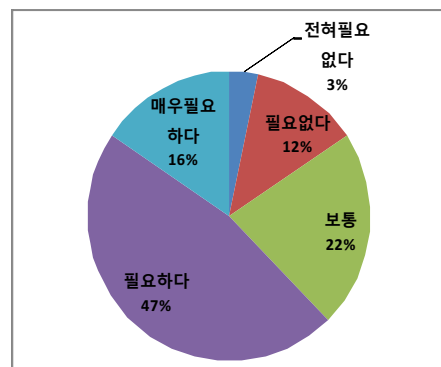


그림 4. 윤리교육의 필요성
Fig. 4 Necessity of ethics education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학생들 자신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59%의 학생들이 ‘참여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대학생들 스스로도 인터넷 윤리교육이 자신에게 현재 필요한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형태는 1순위가 특강/세미나(55%)형태, 2순위 다른 교과목에 소속된 일부 한 단원(24%)형태, 3순위는 독립된 정규과목(21%)형태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학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에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의 수가 심각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볼 때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비율이 조사자의 20%미만에 해당하는 비록 높지 않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악성댓글이 타인의 정신적인 삶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근절 되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인터넷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보다 많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심층적인 교육방안 개선이 필요하며 각 단계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인터넷 윤리를 심층적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필요하다. 또한 대학 내에서도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많은 학생들에게 인터넷 윤리교육 실천에 필요한 많은 특강/세미나의 개최회수를 증가하여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인터넷 윤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다면 교육적인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 우리는 대학생들의 악성댓글과 윤리의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대학생들 대부분이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 악성댓글 근절을 위해 범사회적인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

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조사에서 비록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의 수가 숫자상으로는 깊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악성댓글은 대부분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재미삼아서 게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흥미성 악성댓글은 타인의 삶에 심각하고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대학생들 숫자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터넷 윤리의식의 약화에 따른 잠재적인 악플러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악성댓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차원에서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며 현재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 가지 제안으로 본 연구에 조사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인 특강 또는 세미나 방식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보면 3회 이상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체 교육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반복적인 인터넷 윤리교육의 실시에 따른 대학생 네티즌들의 악성댓글게시 행위의 근절 및 그들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강화하는데 많은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정진욱, “u-사회에서의 정보통신윤리 과제”, 건전한 u-사회구현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6.
- [2] 조아라, 이정윤,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8권 2호, pp. 117-131, 2010.
- [3] Robin M. Kowalski, Susan P. Limber and Patricia W. Agatston, *Cyber 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Wiley-Blackwell, 2008.
- [4] 윤성욱,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한

- 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8.
- [5] 김재희, 김연정, “사이버공간에서 사회적 실제감의 지각과 공격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권 3호, pp. 83-101, 2004.
 - [6] 한국정보처리학회공저, U 시대의 인터넷 윤리, 인터넷 윤리실천협의회, 이한출판사, 2009.
 - [7] 추병완, 정보윤리의 개념과 접근법,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2003.
 - [8] 김혜연, 익명성 뒤에 숨어 꽃는 비수, 인터넷 악성 댓글, 초암네트웍스, 월간(논 주니어), pp. 116-121, 2007.
 - [9] 이미라, 강경철, 이상우,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유무에 따른 댓글 유형 차이가 댓글 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일반댓글과 소셜댓글의 자기통제 정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 28권 3호, pp. 5-40, 2011.
 - [10] 김창환, “악성댓글의 실태와 대응 방안”, 정보통신 사업진흥원, 주간기술동향 통권 1437호, pp. 15-26, 2010.

저자소개



박희숙(Hee-Sook Park)

- 1998. 2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6. 2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현재,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기능성게임 메타데이터 품질표준개발,
디지털콘텐츠 개발,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정보통신교육정책